

## 博士學位論文

# 李中梓의 生涯와 著書에 관한 研究

俞漢鐵·尹暢烈

大田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 對李中梓의 生涯及醫學思想의 研究

俞漢鐵·尹暢烈

大田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通過對李中梓生涯及著書의 研究, 得出如下結論. 李中梓(1588-1655年)字士材, 號念哉, 又稱盡凡居士. 中國 江蘇雲間(華亭, 松江府)南匯(現 上海市 南匯縣)人. 他是明末清初, 具有代表性의 著名醫家之一. 他平生撰寫了二十多部醫學著作. 現今廣爲流傳의 有『內經知要』, 『醫宗必讀』, 『頤生微論』, 『傷寒括要』, 『診家正眼』, 『本草徵要』, 『病機沙篆』, 『本草通玄』, 『雷公炮制藥性解』, 『裏中醫案』等. 他尤其重視研究醫學經典理論, 在書中反復強調其重要性. 他所撰集의 『內經知要』, 有執簡驛繁의 特點. 該書寫于其五十四歲, 即1642年. 從『內經知要』中我們可以窺視到, 其自1605年開始學習醫術以來, 通過四十多年潛心研究形成의 既成熟, 且具有獨到見解의 學術思想. 李中梓의 醫學思想, 下傳於沈朗仲, 馬元儀, 馬氏再傳尤在涇.

關鍵詞: 李中梓, 士材, 『內經知要』, 『醫宗必讀』.

## 1. 緒 論

李中梓가 活動하던 時期(1588-1655)는 明나라가 亡하고(1644) 淸나라가 建國된 時期로 中國이 近代化와 직접 接續되는 時代로서 重要한 成長, 變革期였다. 李中梓는 溫補學派를 대표하는 醫家中의 한 사람이다. 溫補學派는 “脾腎과 命門水火”의 生理的인 變化와 病理的인 變化를 研究하여 溫陽과 補虛를 治療의 原則으

로 삼은 學派로 明代에 形成되어 中國 南方에서 盛行하였다. 淸朝시기는 醫學的인 名家나 名著述의 觀點에서 中醫學의 寶庫라고 할 정도로 그 學術 淵源이 悠長하고 또한 以前에 이룩된 醫學的인 成就業績에 새로운 것들이 接목된 이른바 中醫學의 全盛時代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李中梓가 나타나서 溫補學派를 繼承하였으며 既存의 韓醫學의 基礎理論에 自身의 臨床經驗을 接木하여 刮目할 成就를 이루었으며 自身의 思想을 약 20여종의 책으로 出版하였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이 散失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著書가 약 10여종으로 이에 著者는 李中梓가 出生하여 逝去할 때까지의 그의 生涯와 그의 師承關係 및 醫友, 그가 著述한 책에 대하여 研究하고 이에 얻은 바가 있어서 報告하는 바이다.

## II. 生涯

### 1. 家族史

李中梓는 字가 士材, 號는 念菴 혹은 盡凡居士로, 中國 江蘇雲間(華亭, 松江府) 南匯(現 上海市 南匯縣)사람이다. 明 萬曆 16年(1588)에서 淸 順治 12年(1655)까지 생존하였으며 明末 淸初를 代表하는 著名醫家중 한 사람이다.

李中梓는 官吏의 집안에서 出生하였으며 先代는 匯南 所城里에 居住하였고, 그의 曾祖 李府는 地方을 방어하는 責任을 지고 있던 哨官<sup>1)</sup>이었으며, 本族莊丁을 訓練시켰고, 軍隊에 協助하였다. 明 嘉靖 32年(1553) 가을, 倭軍이 所城里에 侵犯하자 그는 둘째 아들 李香과 함께 出戰하였으나 不幸히 함께 戰死하고 말았다. 다음 해 倭軍 다시 侵入하자, 李府의 아들 李黍가 19세의 나이로 復讐를 하기 위하여 戰場에 나갔으나 城頭 위에서 倭軍의 炮擊에 의해 運命을 달리했다. 巡撫<sup>2)</sup>가 所城의 東門에 忠勇祠를 세우고, 府, 香, 黍 三人을 祭祀지냈다.

李香은 아들이 셋 있었는데 次子인 李尙袞이 李中梓의 父親이다. 初名은 李袞이고 字는 補之, 號는 震瀛이다. 直指使인 尙維持가 巡視를 하던 중 李袞의 文章이 아주 卓越함을 보고 높이 評價하여 이에 寵愛하고 信任한다는 의미로 自己의 姓을 그의 이름 위에 더하게 하였으니

改名하여 李尙袞이 되었다.

萬曆 17年(1589)에 進士가 되었고 理學<sup>3)</sup>에 精通했으며, 아울러 漕運, 河防, 火攻, 壬遁 등의 諸書를 研究하였다. 萬曆 20年 補廷試에서 兵部主事를 授與받았다. 같은 해에 病死했는데 當時 李中梓의 나이는 겨우 4살이었다. 李香의 長子는 李尙雅로 字는 伯安, 號는 鶴雁이다. 『南吳舊話錄』의 卷一에 실린 것을 根據로 보면 어려서는 뛰어난 才能을 가지고 있어, 글을 짓는데 아주 뛰어났고, 또 武藝에도 精通했다고 한다. 집안이 가난해서 功名의 길을 拋棄하고 날마다 고기잡이와 사냥을 하며 하루에 얼마간의 돈을 얻으면 尙袞이 글방에서 讀書하도록 提供하였고 李尙袞의 아우 李尙綱은(字 襲之) 文學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忠厚한 어른이었다고 써여있다.

李中梓의 親兄 李中植은(號 念曾) 세 번 鄉試에 應했으나 合格하지 못했고 萬曆40年(1612)에 病死하였다. 李尙雅의 아들 李中立은(字 士強, 正字, 號 念山)이고 萬曆23年(1595) 進士가 되었다. 醫術에도 精通했으며 著書로는 『本草原始』 12卷이 있고 萬曆40年(1612) 刊行되었다. 그의 아들 李延是는(字 期叔, 我生, 辰山, 號 漫庵, 寒村)이고 李中梓를 따라서 醫學을 배워 名醫가 되었고 著書로는 『脈訣滙辨』 10卷이 있다. 李尙綱의 아들 李中孚(字 士修)는 騎射에 能했다. 崇禎15年(1642) 武舉人<sup>4)</sup>이 되었고 瀏河<sup>5)</sup>游擊에 任命되었다. 崇禎 17年(1644)에 淸兵이 南下時에 抗戰하다가 戰死하였다.

李中梓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天性이 聰明하였을뿐만 아니라 또한 當時의 社會의 動搖에 대한 깊은 有感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벼슬에 대한 欲求가 강하여 早年에 科擧를 공부하여 十二歲에 生員(秀才) 資格을 얻었고

1) 哨 : 軍隊의 편성 單位의 하나. 陸軍은 100명 또는 80명, 海軍은 80명 또는 20명을 一哨로 하였음.

2) 巡撫 : 明代에 임시로 地方에 派遣하여, 民情, 軍情을 巡視하던 大臣. 淸代의 地方行政 長官.

3) 宋代의 理學으로 道學, 宋學이라고 함.

4) 武舉人 : 淸代 武科鄉試에 合格한 사람.

5) 瀏河 : 中國 江蘇省에 있는 江.

이에 名聲을 얻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런 淸剛한 氣品이나 뛰어난 秀才는 “詩文을 짓는 데에는 나라의 政治에 대해서 稱訟해야 하고, 人物 됴됨이로 말하자면 權勢에 順應하여 고개를 숙이거나 아부하는 氣質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6)</sup> 라는 官吏 採用基準에 合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홉 차례나 試驗에 應하였으나 合格하지 못했고 겨우 두 번 副車에 合格하였을 뿐이다.

그 門人인 董眞는 『診家正眼』 序文에서 말하기를 “나의 스승은 7步에 詩를 지을 만큼 재주가 있어서 나이 12세에 屢번히 童試에 나가서 一等을 하였다. 鄉試에 應試가 아홉 번에 副榜이 된 것은 두 번인데 時代를 만난 因緣이 기구해서 드디어 隱居하여 樂道하며 살았다.”<sup>7)</sup>라고 하였다.

李中梓는 비교적 良好한 學習 環境에서 자라날 수 있었고 또한 成長하여 青年時節에는 많은 책들을 접할 수 있었다. 少時에는 文學과 兵法에 精通해 있었다. 후에는 自身이 病魔에 시달리고 父母妻兒과 아들이 庸醫에게 藥禍를 당해서 죽게 되어 마침내 醫者로 轉業하고 岐黃之術에 全力投球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事件에 대해서 그는 『願生微論』 自序에 다음과 같이 記述해 놓았다. “내가 壬辰年(1592)에 亡父하고 癸卯年(1603)에 亡妻하고 乙巳年(1605)에 亡母하고 壬子年(1612) 亡兄하고……倉卒間에 求醫하였으되 折半은 藥誤로 因한 것이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많이 병을 앓아서 處方을 보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이 隱然중에 생기는 것을 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歷境을 거치면서 깊은 有感을 품은 사람이 되었다.”<sup>8)</sup> 라고 하였다.

6) 詩文要歌頌者, 人物取軟滑者.

7)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診家正眼』 序 p.371

8) 余壬辰亡父, 癸卯亡妻, 乙巳亡母, 壬子亡兄……倉卒求醫, 半爲藥誤, 而余又早歲多病, 未免臨方思訂, 是歷境之有感者也.

그는 또한 軒岐로부터 百家에 이르기까지 古典醫書에 깊이 穿鑿하였다. 또한 醫學經典들을 깊이 研究하였는데 특히 『內經』과 『傷寒論』에 대하여는 두루 통해서 하나로 꿰 수 있을 程度였다. 學術적으로는 歷代의 저명한 醫家들의 影響을 깊이 받았는데 劉河間, 張潔古, 李東垣, 朱丹溪, 薛立齋, 張景岳 등과 같은 醫家들의 學說을 모두 取하였으니 즉 先天의 ‘腎’을 중시하였고 後天의 ‘脾胃’를 重視하였으며 ‘水火陰陽論’을 提唱하고 ‘補氣在補血之先’과 ‘養陽在滋陰之上’ 등의 理論을 主張하였다. 특히 李梴의 學問에 깊이 私淑하였으며 記錄에 의하면 그는 江南의 名醫였던 王肯堂, 施笠澤, 秦昌遇 등과 긴밀한 交流가 있었고 相互間에 醫學經典에 대하여 항상 討論하고 研究했다. 특히 그는 患者 治療에 奇效가 아주 많아서 당시 그 名聲이 陽子江(지금의 長江) 南北에 드날렸다.

李中梓는 醫業 以外에 壯년에는 道學에 심취하여 晩年에는 參禪을 했으며 상당한 程度의 깨달음의 境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나이 62歲인 1650년경에 지은 『診家正眼』과 『本草通玄』은 우선 그 書題로부터 佛敎와 道敎의 사상이 녹아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誓不傳之子弟, 慮爲趙括<sup>9)</sup>之續也”이라는 自身의 主觀을 貫徹하여 醫學을 傳授하지 않았다. 그 이름은 允恒(字 壽臣)이고 醫名이 나지는 않았다.

滿洲人들이 山海關으로 侵入해 오자 그는 나라가 敗亡한 것에 대해서 깊은 悲哀를 느끼고 집안에만 蟄居하였다고 한다. 『庚溪詩話』에 다음과 같은 詩가 남겨져 있다.

“띠 얹은 書齋에 앉아 한 잎의 가을을 쳐다 보니 小山에 叢叢한 계수나무 사이로 새소리가 그윽하구나. 칩칩이 가파른 산은 밤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파르르한 새벽녘 석남화(마가목)만 어지러이 훑날리는구나.”<sup>10)</sup>

9) 『通鑑節要』 卷1 周紀 愼觀王篇에 나오는 逸話. 趙括의 愚를 繼承하는 것을 憂慮함.

이런悲痛한 마음 품고 살아가기를 10餘年, 淸 順治 12년(1655)에 亡國의 恨을 머금고 逝去하였다.

## 2. 師承關係

李中梓의 醫術經驗은 門人과 弟子들에게 直接 繼承된 것 以外에도 馬元儀에게 다시 傳해졌다. 馬倣(字 元儀)은 江蘇, 吳縣人으로 淸 康熙 間의 名醫였다. 沈朗仲에게 배우고 또 李中梓와 張璐(字 路玉, 號 石頑)에게 質問을 하기도 했으며 또한 喻昌(字 嘉言, 晚號 西昌老人)을 私淑했다. 그는 스승 沈朗仲을 대신해서 『病機滙論』 18卷을 校定하며 每一門 病類마다 按語를 加하였다. 按語는 스승이 傳授해 준 內容을 綜合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自己의 經驗도 附加했고 李中梓의 學術思想중에 있는 隱微한 것들을 分明하게 밝혔다. 또 著書에는 『印機草』(又名 『馬氏醫案』) 1卷이 있으며 여기에는 醫案 73則이 실려 있고 證에 따라서 分類하였다. 『病機滙論』의 後에 붙여서 初刻하였는데 醫案과 『醫宗必讀』 및 書中에 論述한 論理法과 方藥은 相互 印證관계에 있다. 書中の 傷寒類 말미에 張石頑과 有關한 傷寒의 醫論 數則이 記錄되어 있다.

李中梓의 醫學은 三傳하여 尤怡(字 在涇, 號 拙吾, 飢鶴山人)에 이르렀는데 江蘇 吳縣人이며 少時에는 馬元儀로부터 醫術을 배웠다. 馬氏는 일찍부터 醫名이 있어서 門生이 아주 많았지만 晩年에 尤在涇을 얻어서 甚히 기뻐했다고 한다. 尤在涇은 스승의 가르침을 얻고 많은 희귀병을 治療하면서 醫名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晩年에는 花溪라는 곳에 隱居하였고 著述活動을 하면서 醫論을 세웠다. 李中梓의 醫術은 門人이나 弟子들과 共同努力을 통하여 發展하였는데 특히 沈朗仲, 馬元儀, 尤在涇을 통해서 理論研究와 臨床經驗 方面에서 부단한

發展을 했을 뿐만 아니라 學術上으로도 平正하여 치우침 없었고 內科雜病, 傷寒으로부터 溫病까지 걸쳐서 스스로 一家를 이루고 마침내 獨自인 土材學派를 만들었다. 『中國醫學源流論』에 쓰여있으니 “明末 諸家中에, 비록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大體로 平正하면서 치우치지 않는 醫者로는 마땅히 李中梓를 내세울 수 있다.”라고 評價하였다. 要約하면 土材學派의 一傳은 沈朗仲이고 再傳은 馬元儀이며 三傳은 尤在涇이다.

## 3. 醫友

李中梓는 40餘年間 醫學에 從事하면서 劉道深, 徐子瞻, 沈元裕와 함께 民間에서 ‘上海四大醫家’라는 榮譽를 받았다. 當時의 相國 錢機山, 給諫 許霞城, 文學 沈子凡, 少司丞 張侗初, 郡守 黃敬如, 光祿卿 吳玄水, 工部主政 王漢梁, 郡守 張三星, 刑部主政 徐凌如, 工部主政 唐名必, 孝廉 王征美, 制台 張石林, 蘇淞道 萬玄圃, 相國 楊文若, 徽商 汪華泉, 邵武邑宰 何金陽, 給諫 張魯齋, 兩廣都憲 李來吳, 撫台 周洱如, 吏部少宰 蔣恬庵, 撫台 毛孺初, 浙江邑宰 嚴知非, 青浦邑尊 韓原善 등의 學人, 官僚와 더불어 交往이 있었다.

李中梓는 性格이 平素에 質樸했고 또 高尚한 品格을 좋아하였는데 따라서 富貴한 사람이 아니면 그를 招聘할 수 없었다. 現存하는 醫案들을 보더라도 그가 診察한 病人의 대다수는 富貴商 및 權力者들이었다. 그는 診察活動과 著述, 그리고 弟子를 가르치는 중에도 늘 施沛, 秦昌遇, 王肯堂, 吳縣의 郭大川, 閱曙公 등 名醫와 함께 交往하면서 醫技를 切磋琢磨했고 醫理를 探討하였다. 또한 가꿈씩은 蘇州, 浙江 北部 等地로 出診하러 가기도 했다. 일찍이 두 차례 비교적 長時間동안을 蘇州 上津里的 郭大川과 함께 居住할 期會가 있었는데 癥積治療의 名方으로 評價되는 陰陽攻積丸은 바로 郭園 當地에 살고 있던 老婆를 訪問해서 얻은 것이다.

10) 坐見茅齋一葉秋, 小山叢桂鳥聲幽, 不知疊嶂夜來雨, 淸曉石楠花亂流.

長洲縣의 張璐(字 路玉, 號 石頑)는 오랫동안 科學試驗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儒를 버리고 醫를 공부하여 清代 名醫가 되었고 『傷寒緒論』, 『本經逢原』, 『診宗三昧』, 『張氏醫通』 등 多種의 著作을 지었다. 年齡은 李中梓보다 約 30歲가 적었으나 李中梓를 아주 尊敬하여 『張氏醫通』에 『內經知要』, 『醫宗必讀』, 『土材三書』 등의 內容을 纂用하였고, 아울러 李中梓의 門人인 沈朗中, 馬元儀, 李廷是 등을 招請하여 參閱하고 校訂하였다.

醫學文獻에는 그가 몇몇 名醫와 더불어 共同 診療를 한 것과 李中梓가 醫家로서 治病을 한 狀況이 記載되어 있다. 有關資料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① 同鄉 施沛(字 沛然, 號 笠澤)는 일찍이 河南의 廩州 通判을 除授 받았고 兼해서 醫術에도 通達하여 『祖劑』 4卷, 『雲起堂診籍』 1卷, 『脈微』 2卷을 지었으며 지금까지 傳한다. 또 『藏府指掌圖』, 『經穴指掌圖』, 『說療』, 『脈微』, 『醫醫』, 『黃帝脈書』 등 書도 지었으나 오늘날까지 傳해지지 않는다.

『裏中醫案』에는 李中梓가 施沛의 關節腫痛을 診療한 醫案이 記載되어 있는데, “別駕 施笠澤은 兩足腫重, 痛若虎噬하여 울부짖는 소리가 창밖에까지 貫通하였다. 四物湯에 加檳榔, 木通, 牛膝, 苡仁으로 다스렸으나 數劑에도 病이 不少減하였다. 내가 ‘陰脈이 細하고 뼈에 닿을 때까지 눌러보니 堅하다. 이것은 虛에 原因이 있는 것이 아니다’<sup>11)</sup> 하였고 하물며 兩膝이 붉게 되어 있고 손을 대어보니 손을 지질 듯이 뜨거웠으므로 마땅히 黃柏 五錢을 君으로 하고, 木通 四錢을 佐, 檳榔 一錢을 使로 하여 하루에 兩劑를 복용하니, 빠르게 나왔다. 笠澤이 服之하고 十餘劑에 나왔다.”라고 되어있다.

『診家正眼』 卷下에는 두 사람의 共同診病이 收錄되어 있는데 代脈의 情況에 대하여 討論하

였다. “善化縣의 黃桂岩이 心疼奪食, 脈이 三動一止인데 한참이 지나서도 回復되지 않았다. 施笠澤은 五臟의 氣가 不至해서 原則상 아침이나 저녁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古人이 말씀하기를 ‘痛症이 심한 것에는 代脈이 많다.’ 周梅屋이 ‘젊은이가 代脈이면 죽지만 늙은이가 代脈이면 살게 된다.’ ‘지금 桂岩의 春秋가 높은지라, 胸腹에 痛症이 있고 비록 代脈이 있지만 염려할 것은 못 된다’ 과연 兩句이 지나니 桂岩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醫者が 博覽하지 않으면 脈의 變化를 쉽게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醫宗必讀』에도 施笠澤과 共同 진료한 醫案이 실려 있는데, “社友 韓茂遠이 傷寒九日에 口不能言, 目不能視, 體不能動, 四肢俱冷하니, 모든 사람이 陰證이라고 한다. 내가 診察해보니 六脈이 皆無하고, 손으로 배를 누르니, 患者가 양 손으로 배를 保護하려고 하며 눈썹을 찡그리므로 그 趺陽을 살펴보니 大有有力하더라. 이에 腹에 燥屎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大承氣湯을 주고자 하였으나, 病者가 크게 놀라며 감히 服用하지 못했다. 내가 ‘우리 郡에서 能히 이 證을 辨別할 者는 오직 施笠澤일 따름이라’ 그를 오게 하여 그것을 診察하게 하니, 내 말과 符節처럼 合하더라, 드디어 服用하게 하니 燥屎 六七枚가 나오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몸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手에 있는 寸口脈만 診하고 足에 있는 趺陽脈은 診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金방 絕命할 患者를 求할 수 있었겠는가?’<sup>12)</sup>라고 하였을 정도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知己였으며 亂雜症을 分析하고 함께 變症하고 診斷하는 사이였다. 서로 相輔하고 相成하면서 著述활동을 한 것으로 것이 보여 진다.

② 華亭 泗涇 秦昌遇(字 景明, 號 廣野山人)는 어려서부터 多病하여 醫學을 배웠다. 비

12)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醫宗必讀·傷寒』 p.172

11) 陰脈細矣, 按之至骨則堅, 未可竟以虛責也.

록 傳受 받을 스승은 없었으나 不斷한 精進으로 研究를 거듭하여 兒科의 名醫가 되었고 결국 '嬰兒疾病을 치료하는 神'이라는 稱號를 들었다. 著書는 『幼科折衷』 2卷, 『幼科金針』 2卷, 『脈法頡珠』 2卷(抄本), 『痘疹折衷』 2卷(抄本) 및 그의 孫子인 秦之禎 (字 皇士)이 整理한 『脈因證治』 4卷이 있다.

李中梓가 지은 『醫宗必讀』 10卷은 明 崇禎 10年(1637)에 刊印되어 세상에 나왔다. 바로 4年後에 秦昌遇가 『辨正醫宗必讀』을 짓고 『醫宗必讀』 가운데 漏落된 부분을 補充하고 바로 잡았으며 아울러 좀 더 精密하게 자기의 見解를 적었다.

『裏中醫案』에는 李中梓가 涌吐法을 應用해서 秦景明의 痰飲病을 治療한 것이 記載되어 있다. “社友 秦景明은 평소 痰飲이 있었고 매년 반드시 4-5회 發生 하였으며 發作하면 곧 嘔吐와 不能食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 病이 日久하면 窠囊을 形成하니 大涌法이 아니면 낫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모름지기 補中益氣를 十日 服用시키고 而後에 瓜蒂散을 頻投하니, 涌하는 것이 豆汁과 같고, 繼續하니 赤豆沙같은 것이 數升이나 나왔고 그리고 나서도 다시 水晶을 1升쯤 吐했다. 이와 같이 7번 補하고 7번 涌했다. 百日이 되니 窠囊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오로지 六君子湯과, 八味丸을 服用시켰으며 一年 내내 그치지 않고 服用하게 하였다.”<sup>13)</sup>

③ 王肯堂(字 宇泰, 號 損庵, 自號, 念西居士)은 明代 著名醫家로 著書에는 『六科證治準繩』 120卷, 『醫論』 3卷, 『醫辨』 3卷 등 多種의 醫書가 있다. 그의 年齡은 李中梓에 比해서 37歲가 많아서 李中梓의 先輩가 되었고 李中梓의 醫術에 대해서 아주 信賴하였다. 晩年에 그는 脾泄의 症狀이 있었는데 李中梓가 巴豆霜을 써서 治癒시켰다. 그 醫案이 『醫學達變』<sup>14)</sup>에

記載되어 있다. “王肯堂은 醫術에 精巧하였지만 年壽이 八旬에 脾泄에 걸렸다. 여러 醫者가 전부 年高하고 體虛하다고 판단하여 淸사리 滋補하자 病은 더욱 甚해졌다. 오직 李中梓 先生은 그것을 보고 公께서 體肥多痰이시라, 補할수록 더욱 滯하리니, 마땅히 신속하게 利藥을 써서 蕩滌해야 하는데, 公께서는 의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王肯堂이 말하기를, 當世에 醫를 아는 者는 오직 나와 당신뿐인데, 公대가 方을 定하면 내가 服藥하리니, 또 무슨 疑심을 하리요. 이에 비로소 巴豆霜을 去油淨하여 服하게 하니 卽 痰涎이 下하는데 數升이며 疾病이 순식간에 나왔다. 가령 年高하고 體虛한데 下多하면 傷陰한다는 說에 구애되면 疾病이 어찌 능히 나올 수 있겠는가. 經에 通因通用이라고 하더니, 믿을 만 하구나.”라고 하였다.

이러한 한 토막의 逸話는 王肯堂과 李中梓가 學術적으로 서로가 이미 마음이 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說明해 주고 있는 것으로 王肯堂이 목숨을 依賴할 정도여서 일반적인 醫家들의 交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 醫案은 『對山書屋墨余祿』<sup>15)</sup>에 記載되어 있다.

#### 4. 門下生 및 學派

李中梓는 平生 글 쓰는 일에 부지런하여 지은 醫書板本도 아주 많고 流布된 것 또한 아주 廣泛하며 學驗도 아주 豊富하여 醫名을 널리 드날렸다. 三吳縣<sup>16)</sup> 地域의 사람들은 그를 長沙의 太守였던 張伸景을 보듯이 대하였고 彭孫貽는 李延是가 지은 『脈訣滙辨·序』에서 그를 稱하여 “近代之和, 扁也”라고 했을 정도로 名聲이 陽子江 一帶에서 높았다. 李中梓의 弟子도 아주 많은 편으로 門下生이 門前成市를 이루었고 傑出한 人才가 많았으며 大多數는 蘇州府,

14) 張生甫의 著書.

15) 毛祥麟의 著書.

16) 三吳: 吳縣, 吳江, 吳中지역으로 현재의 蘇州, 常州, 湖州의 세 地域을 말한다.

13)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裏中醫案』 p.764

徽州府, 杭州府, 松江府, 紹興府, 湖州府, 吳縣, 上海縣, 華亭縣, 長洲縣, 青浦縣等地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有關資料<sup>17)</sup>에記載된 것에根據하면 門人에는 沈頤(字 朗仲), 尤乘(字 生洲), 董廩(字 晉臣), 秦卿胤(字 古懷), 許友緒(字 名子), 董爾正(字 季方), 李玄度(字 公超), 包時化(字 象蕃), 朱天定(字 道力), 黃寅錫(字 清伯), 張介福(字 受慈), 孫三錫(字 黃緒), 楊時明(字 亮生), 富日章(字 伯含), 董宏度(字 君節), 傅持容(字 元厚), 陸智巖(字 毅生), 李廷杰(字 弘雅), 徐化鰲(字 神諸), 徐廷圭(字 君執), 陸蔭(字 臣如), 朱景暘(字 玄賓), 邵德延(字 公遠), 江青(字 子巽), 徐復(字 雪凡), 薛暉(字 曇孚), 徐以榮(字 山友), 戴期騰(字 景升), 吳國奇(字 君正), 程懋續(字 介眉), 葉挺秀(字 天生), 王克勛(字 叔云), 蔣示吉(字 仲芳), 王兆麟(字 聖生) 等人이 있었으며, 두루 李中梓의 가르침을 받았다. 親戚中에 그業을 이은 者로는 조카, 李果瑛(字 朗潤), 李廷是(字 期叔, 辰山)가 있고, 姪孫으로 李廷芳(字 衡伯), 姨從으로 劉道深(字 公原)이 있다. 비록 弟子가 곳곳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子弟에게는 傳하지 않겠다고 盟誓'를 했다. 이는 古史에 나오는 '趙括의 前轍을 밟지 않겠다'는 念慮<sup>18)</sup>에서였다. 그의 아들 李允恒은 일찍이 醫書의 校閱에는 參與하였으나 父業을 잇지는 않았고 醫로써 名聲도 없었다. 많은 門人中에서도 劉道深, 沈朗仲, 尤乘, 李廷是, 蔣示吉이 더욱 出衆했는데 이들은 李中梓의 醫術을 繼承해서 일 뿐만 아니라 책을 쓰고 立論을 하는데 스승의 學說을 널리 傳播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劉道深은 李中梓로부터 醫를 배웠고 2年을 努力 끝에 마침내 秘訣을 習得하였다. 무릇 치료를 원하는 者는 貴賤을 不問하고 반드시 應했다. 著書로는 『症脈合參』, 『傷寒探微』, 『醫案

心印』 등이 있으며 모두 散佚되었다. 스승인 李中梓와 함께 上海 四大醫家中의 하나가 되었고 醫名이 卓越했다.

沈朗中은 崇禎 13年(1640)에 李中梓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頤生微論』의 刪補에 參加하였으며 崇禎 15年(1642)에 刪補가 完成되었다. 李中梓는 그해 四月에 기록한 自序 中에 刪補科程과 및 本人의 느낌을 講述했다. 그는 "庚辰年(1640) 가을에 吳門의 沈子 朗仲이 翩然히 돌아왔는데 한 번 손을 잡으니 마음도 莫逆한 사이가 되었고 그의 稟性 또한 端正, 冷徹, 厚德, 剛直하고 義俠心이 強하여 큰 道를 신기에 偉大한 그릇이다. 그와 더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對話를 해보니 神靈스럽지 않은 곳이 없더라."<sup>19)</sup>라고 稱訟하였다.

沈朗中の 著書에는 『病機滙論』 18卷이 지금 傳한다. 近代 醫學者인 徐榮齋는 "『病機滙論』이 『醫宗必讀』의 五卷에서 十卷까지의 衍化物이라고 主張했으며 이것은 土材學說의 繼承이라고 인식했다. 增廣된 部分은 즉 朗仲의 學術經驗의 새로운 발견이다."라고 생각하였다. 近人인 謝利恒<sup>20)</sup> 역시 그의 著書 『醫學源流論』에서 이를 評하기를 "『病機滙論』 18卷은 朗仲이 輯한 것인데 馬元儀가 晩年에 尤在涇과 더불어 參訂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前賢의 方論을 모아서 모두 李中梓에서 끝나진 眞실로 土材一派 學問의 최고 完全한 書이다."라고 評했다.

尤乘 (字 生洲, 號 無求子)은 清初의 江蘇 吳縣人이다. 早年에 儒學을 공부하였고 後에는 儒學을 버리고 醫學을 研究하였다. 弱冠에 李中梓로부터 醫學을 배우고 後에는 良師를 두루 방문하여 鍼灸之傳을 배웠다. 일찍이 太醫院 御前侍值를 맡았고 3年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17)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李中梓醫學學術思想研究 p793-794

18) 誓不傳之子弟, 慮爲趙括之續也.

19)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刪補頤生微論』 p.643

20) 謝利恒: (1880-1953) 名이 觀이며 江蘇, 武進, 孟河人이다. 著書로는 『中國醫學大辭典』, 『中國醫學源流論』, 『澄齋醫案』 등의 책을 撰하였다.

虎邱에서 醫者로 開業을 하였다. 일찍이 李中梓가 지은 『診家正眼』, 『本草通玄』, 『病機沙篆』 등을 增補하여 스스로 『壽世青編』 二卷을 著述하였고 위의 增補된 세 권을 『土材三書』라는 叢書형태로 淸 康熙六年에 刊刻해서 펴내었다. 이 책은 그 後 歷代로 끊임없이 板刻되었고 現在 二十餘種의 다른 別本들이 存在한다. 尤乘이 지은 또 다른 책으로는 『勿藥須知』, 『臟腑成鑑』, 『喉科秘書』, 『食治秘方』이 있고 또 明代 賈所學의 『藥品辨義』 三卷을 修訂하여 『經絡全書』 2卷을 다시 編輯했는데 그는 李中梓의 學說을 傳播하는데 커다란 貢獻을 하였다.

李廷是는 早年에 科學공부를 하였고 同郡의 舉人인 高孚遠에게 師事하였다. 태어나자 亂世를 만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에 李中梓로부터 醫學을 배웠다. 醫術이 高明하고 診病에 能해서 손만 대면 患者가 살아났다. 明이 亡하자 일찍이 桂林의 唐王에게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抗淸운동이 失敗한 後, 浙江 平湖 佑聖宮에서 隱居하면서 道士로서 살았고 醫로써 生活을 營爲하였으며 西園老人이라 불리었다. 晩年에 嘉興에 사는 醫家요, 文學家인 朱彝尊과 더불어 交往하면서 그가 지은 著書와 藏書 2500卷을 그에게 주었다. 淸 康熙年間に 卒했고 향년 70歲였다. 朱彝尊은 그를 위해서 『塔銘』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의 一平生을 記述했다. 著書에는 『脈訣滙辨』 10卷이 있는데 當時에 널리 유포되어있던 高陽生 『脈訣』이 誤謬가 매우 많으므로 七十餘種의 脈學文獻을 모으고 學家論述과 자신의 體驗을 덧붙였고 또한 李中梓가 未盡했던 部分에 대해서 闡述하였다. 卷9에는 李中梓 醫案 57則을 실었으며 淸 康熙五年에 刊行되었다. 『醫學口訣』, 『痘疹全書』은 發見되지 않는다.

蔣示吉(字 仲芳 號 自了漢)은 江蘇 吳縣人이다. 尤乘은 그를 일컬어 “松江, 浙間에 往來하면서 臨證한 것이 아주 많으니 活人시킨 治驗例를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였다. 『醫

宗說約』 6卷을 지었는데 『內經』과 歷代醫家의 論述을 要約하고 자신의 臨證 經驗과 結付시켜 整理完成하였다. 淸 康熙 2年(1663)에 刊行하였다.

卷首는 總論으로 四診, 藥性, 治則 등을 論述했다. 卷一, 二에는 內科雜病이 실려 있고, 卷三에는 傷寒, 卷四에는 小兒, 婦產科 卷五에는 瘡科가 실려 있다. 各科는 分症해서 論述했고, 論, 方, 歌訣이 있어서 暗誦하기 쉽게 했다. 醫學入門者를 위한 著作이며 10餘種의 別本이 있다. 流布된 것이 비교적 廣範圍한 편이다. 書中の 卷一의 “脈法” 按語와 “治法, 虛中實” 第一案과, 卷四 “傷寒陰陽毒” 按語中에는 세 차례나 ‘土材先師’, ‘先師李土材’ 등의 名稱을 舉論했다. 徐榮齋는 “蔣示吉이 李中梓를 私淑했고 또한 간혹 李中梓에게 묻기도 했는데 아마도 그 당시 李中梓는 이미 晩年이었고 蔣示吉 역시 당시에 知名度가 있어서 李中梓는 蔣示吉을 자기의 門牆之列에 넣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尤乘도 『醫宗小補·序文』에서 蔣示吉을 先生이라 稱하면서도 同門이라 稱하지 않았으니 이 역시 스승의 뜻을 받들어 그를 尊重하는 뜻을 繼承했다.”라고 생각했다.

##### 5. 著述活動

金元시대 이후 劉河間의 主火論부터 시작하여 朱丹溪의 養陰學說이 잇따라 세상에 발표되었고 아울러 나날이 陽子江 南北으로 盛行하고 있었는데 李中梓는 당시 醫療界가 辨證을 거치지 않고 常套의 劑方을 쓰던 잘못을 바로 잡았으며 또한 用藥에도 香, 燥, 辛, 熱 한 것에 치우치는 時代的 病廢를 바로 잡아 醫療界의 風土를 刷新했다. 그러나 後世에 몇몇 醫者들은 中醫學의 治療에 있어서 因時, 因地, 因人에 따라 辨證論治하는 이런 特徵을 忽視하고 診療를 하는데 있어 “모든 病은 火에 屬한다.” 혹은 “陰虛火動”이라는 說에 拘碍되어 偏狹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늘 寒涼한 藥物

로 攻伐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元代에서 이미 나타났는데 明代에 이르러 더욱 盛해지면서 醫療界의 한 風土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렇게 辨證을 하지 않고 寒涼한 藥을 함부로 쓰는 時代의 弊端에 대해서 明代부터 시작해서 적잖은 醫家들이 批判을 가하기 시작했고 理論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意見을 드러내며 그 危害性을 指摘하여 中醫學史에서 周知의 事實인 “寒溫之爭”을 形成하기에 이르렀다. 李中梓는 이 論爭에 대해서 자신의 觀點을 분명히 하여 당시의 몇몇 醫者들이 寒涼한 藥材를 함부로 投與하는 것에 대한 危害性에 批判을 가했다. 그는 “虛證에도 熱이 있을 수 있는데 醫者가 단지 有熱만 보고 쉽게 寒涼之劑를 投與하니 이는 病方이 肅殺시킨 것인데 醫者가 다시 한번 肅殺시키는 것이다.”<sup>21)</sup>라고 指摘하면서 이론적인 체계를 無視하던 醫療界의 時代的 病廢에 대해서 강한 疑問을 提起했던 것이다.

醫學의 發展은 明代에 이르러 이미 많은 諸家들이 나타났고 大衆의 說도 紛紛해서 各宗의 醫學理論에 어떻게 客觀的으로 對處하는가 하는 것이 當時 醫學界가 直面한 重要한 現實問題였다. 李中梓는 學問을 하는 데에도 아주 嚴格하였으며 또한 폭이 넓어서 各家의 長點을 取하되 치우친 偏見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著名 醫家들이 스스로 一家의 學說을 이룬 것은 學術上으로 成就의 結果이지 立論이 特異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認識했다. 그는 “張仲景, 劉完素, 李東垣, 朱丹溪 등의 著名한 醫家들이 모두 前人들의 醫學基礎를 繼承하면서 自身의 臨床內容을 그것과 接木시켰는데 여기저기서 억지로 끌어 모으려고만 하지 않고 自己自身의 새로운 方法을 考案해 내었다”<sup>22)</sup>고 認識하였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指摘하였는데 “仲景이 著述한 『傷寒方論』에서 風, 寒, 暑, 燥, 濕, 火의 六氣가 전부 사람을 傷하게 하지만, 오직 寒邪는 殺厲의 氣로서 사람을 傷하게 하는 정도가 훨씬 甚하다. …… 그러므로 397法과 113方을 세워 『內經』의 未備를 補한 故답으로 一家의 學說을 이루었다.” “故로 劉河間이 나타나서 비로소 春溫夏熱之變化를 窮究하였으되 六經의 傳變이 淺部에 있든지 深部에 있든지 이것은 모두 熱症이오, 陰寒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溫熱을 연구하여 立論한 것이며 『內經』에서 말한 ‘반드시 歲氣를 먼저 살피고 天地의 調和로운 氣運을 伐하지 말라’<sup>23)</sup>고 한 五運六氣의 趣旨에 仲景의 未備點을 補完해서 一家의 學說을 이루게 되었다.” “오직 內傷과 外感은 서로 비슷하나 治法은 懸隔히 다른데 李東垣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分辨해 내었으니 …… 또한 張機와 劉完素의 未備點을 補完해서 一家의 學說을 이루게 된 것이다.” “또 丹溪가 나타나서 陰虛發熱을 밝히고 또한 이를 하여 內傷이라고 하였으니 治法 또한 李東垣의 그것과 다르다. ‘陽은 항상 有餘하고, 陰은 항상 不足하여, 眞水가 少衰하여 壯火가 上亢하게 되면, 黃柏, 知母, 四物로써 다스린다. 이것 역시 『內經』의 要旨을 밝혀서, 東垣의 未備를 補完함으로 一家의 學說을 이루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sup>24)</sup>

『診家正眼』의 自序中에서 李中梓는 醫學에 四十餘載를 從事하였다고 自述하였다. 이것을 根據로 推測해 보건대 그는 母親의 病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醫學을 接觸하였고 自身이 혼자 스스로 醫理를 研究하였고 醫學을 窮究하였다. 李中梓는 훌륭한 宰相이 되려는 생각보다는 곧

社, 1999.8. 『醫宗必讀·四大家論』 p.80

23)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 素問, 서울, 여강출판사, 1994. 『素問·五常政大論』 4卷 p.294

24)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醫宗必讀·四大家論』 p.80

21)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醫宗必讀·藥性合四時論』 p.84

22)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醫宗必讀·四大家論』 p.80

良醫가 되려고 志向하였으며 오른지 獨學에 依支한 才士였다. 한편으로는 經典著作과 歷代名著를 體系의으로 學習하였고 前賢들의 醫學理論과 經驗을 繼承하였다. 또 한 편으로는 學習과 동시에 實踐에도 重點을 두었는데 이는 곧 實踐하면서 醫學에 대한 能力을 向上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는 『內經』에 대하여 “不朽의 큰 사랑을 드리워서 百姓이 오래 살게 되는 地境을 열어주었다.”<sup>25)</sup>라고 했으며 “그 理致와 道가 깊고 文辭가 古色을 띄고 아담하여 깊숙이 또 精微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解答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sup>26)</sup>라고 하여 옛사람의 敎訓을 부지런히 求하고 經文을 精選하여 아울러 必要한 校勘과 많은 注釋作業을 하였고, 또 每章의 끝에 ‘愚按’이라는 말로 按語를 덧붙였다.

張仲景學說에 대하여 李中梓는 歷代注家를 參考해서 要點을 추리고 眞正한 뜻을 찾아내서 『傷寒括要』 2卷을 編撰하였다. 이 책은 分類를 간단히 하였고 立論이 大體로 平易하며 또 아주 詳細하게 概括하여 뜻을 분명히 설명하여 놓았다. 張仲景, 劉完素, 李東垣, 朱丹溪 등 四大醫家의 學術思想에 대하여 그는 自己의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東漢의 張仲景이 著述한 『傷寒論』이 그 치료를 論한 바가 모두 冬月의 正傷寒<sup>27)</sup>이라고 認識하였다. 만약 春에 이르러 變하게 되면 溫病이 되고, 夏에 이르러 變하게 되면 熱病이 되므로, 모두 그 效力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認識하였다. 金代의 劉守眞에 이르러, 비로소 春溫夏熱의 變化를 窮究하여 張仲景의 未備를 補完하였다. 李東垣은 內傷과 外感을 詳細히 辨別하여 枳朮丸을 써서 飲食傷을 治療하였고 補中益氣湯으로 勞倦傷을 治療하였다. 元代 朱丹溪가 陰虛發熱

을 發明하여, 陽은 항상 有餘하고, 陰은 항상 不足하니, 眞水는 少衰하고 壯火가 上亢하므로, 黃柏, 知母로써, 四物湯과 함께 해서 다스린다. 四大醫家는 각기 스스로 一家를 이루었다. 그러나 後世에 공부를 正確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張仲景을 공부한 사람들은 往往 辛溫한 藥物에 치우쳤고 劉河間을 공부한 사람은 주로 苦寒한 藥物에 치우쳤다. 또한 李東垣만을 따르면 升補하는 藥物에 치우치게 되었고 朱丹溪만 추종하면 淸降시키는 藥物을 固執하게 되었는데, 李中梓는 이런 現象이 學習을 하는 사람이 諸家들의 著作에 대해 깊이 研究를 하지 않고 또 그 諸家들의 學術思想을 全的으로 把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仲景은 겨울철의 嚴寒을 治療하려고 辛溫한 약을 多用했고, 守眞은 春夏의 溫熱을 治療하려고, 苦寒한 약을 多用했다; 東垣은 脾氣를 도와주는 것을 爲主로 하였는데, 氣는 陽으로 上升을 주로 하며, 虛한 者는 下陷이 많으니 주로 補氣藥에 升麻, 柴胡로 그 氣를 들어올려 春夏之升을 본받았다. 丹溪는 補腎養血을 시급히 하였는바, 血은 陰이오 下降을 主하는데, 虛한 者는 上逆이 많으니, 故로 補血藥에 黃柏, 知母를 加하여 降하게 함으로써, 秋冬之降을 본받았다.”<sup>28)</sup>

이것이 그의 學術思想의 特徵이며 지금까지와는 서로 다른 側面으로 이는 中醫學 理論과 治療經驗을 豊富하면서도 充實하게 한 原動力이 되었다. 따라서 李中梓는 다음과 같이 認識하였다. “가령 仲景이 春夏에 溫熱病을 당하면 辛熱(藥)에만 執着을 하지 않을 것이고, 守眞은 嚴冬에 寒邪를 당하면, 꼭 苦寒藥에만 執着하지 않았을 것이오, 東垣은 火逆을 治療하는데 結단코 升提에만 固執을 부리지 않았을 것이오, 丹溪는 脾虛를 治療하는데 涼潤에만 拘

25)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醫宗必讀·讀內經論』 p.79

26)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醫宗必讀·讀內經論』 p.79

27)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醫宗必讀·四大家論』 p.80

28)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醫宗必讀·四大家論』 p.80

碍되지 않았을 것이다.”<sup>29)</sup> 그러므로 後學者들은 그 本旨을 분명히 把握하여 그 長點은 取하고 短點을 補完하여야 하니 반드시 一端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비로소 失手가 없을 것인라고 하였다. 李中梓의 이런 客觀的인 治療態度는 歷代 醫家中에서 확실히 公平하면서도 탁월한 持論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는 여러 책을 博覽하고 歷代 30여 醫家 및 그 代表作의 周到綿密한 점과 偏頗의이고 不足한 점을 簡潔하면서도 的確하게 評述하여 『醫宗論』을 지었으며 이를 『刪補頤生微論』 中에 실었다. 그의 學術思想의 淵源은 『內經』과 『傷寒論』外에 後世의 張元素, 李東垣의 脾胃學說, 薛立齋 補腎學說을 繼承하였고 張景岳의 濫補도 받아들였으며 反對로 苦寒으로써 滋陰을 삼기도 했고 특히 醫學心理學的 論述을 重視하였다.

그의 平生동안 學問하는 態度는 嚴格하고 內實이 있었으며 探索에 부지런하였고 아울러 實踐함에도 늘 創造的이었다. 學術上에 있어서도 늘 法度를 지켰고 變通(情勢에 順應)함을 취해서 여러 醫家들의 長點에 精通할 것을 主張해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았다.

#### 6. 著 書

一生의 著作은 아주 많았는데 連續的으로 약 20餘種을 지었으나 여러 번 兵火를 거치면서 散佚된 것이 半이 넘으며 지금까지 겨우 10種이 남아있다. 지금 世上에 流通되고 있는 것은 『內經知要』, 『醫宗必讀』, 『頤生微論』, 『傷寒括要』, 『診家正眼』, 『本草徵要』, 『病機沙篆』, 『本草通玄』, 『雷公炮制藥性解』, 『裏中醫案』 등이 있고 그 中 特別한 것은 『內經知要』와 『醫宗必讀』인데 比較的 李中梓의 學術思想이 集中的으로 反映되어 있으며 둘 다 內容이 深奧하지만 알기 쉽게 表現되어 있고 簡單한 것으로부터

좀 복잡한 것으로 說明해서 들어가는 特徵이 있어 後世 醫學者들이 翹用하는 醫書가 되었다. 清代의 薛雪이 『內經知要』의 序文에서 밝힌 대로 “醫師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힘을 쓸 수 없는 자들에게 方便이 되게 하였으며” 이것을 통하여 醫學을 가르쳐 普及하는데 비교적 큰 貢獻을 하였다. 『本草徵要』라는 책도 流通되고 있는데 이 책은 『醫宗必讀』 中の 三-四권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醫宗必讀』의 重複이라고 看做할 수 있다. 著述된 것들을 아래에 詳述한다.

#### 1) 『內經知要』

明 崇禎 15年(1642), 그의 나이가 54歲 때 『李士材醫書二種』라는 形式으로 刊行되었고 上下 兩卷으로 되어 있다. 李中梓는 『內經』을 아주 重視하였다. 그는 『內經』을 수십 년 동안 깊이 研究하였는데 이 책이 理致가 깊고 뜻이 奧妙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同時에 이 책이 醫學을 익히는데 아주 重要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內經』 原文에 根據해서 깊은 內容이지만 쉽게 說明하고 分析하였다. 內容은 간단하고 條理가 明快해서 後世 사람들은 이 책을 『內經』을 공부하는 入門書라고 널리 公認하게 되었다.

『內經』은 醫學의 祖宗으로 그는 『素問』, 『靈樞』로부터 臨床上 切實하게 使用되는 經文을 選別하고, 楊上善, 王冰, 滑壽, 張介賓 등의 注釋을 參考하여 『內經知要』 2卷을 編成하였다.

『素問』과 『靈樞』의 原文을 選錄하고 分流한 후에 注釋을 加했다. 上卷에는 道生, 陰陽, 色診, 脈診, 藏象 5편이 있고 下卷에는 經絡, 治則, 病能 3篇이 있다. 이 책에 註釋된 글은 實際와 結付되어 있고 重要的 것이 잘 表現되어 있고 條理가 아주 明快하며 비록 8類로 分流되었을 뿐이지만 中醫學의 基本的인 理論體系와 概況을 具顯하고 있다. 生理는 물론 病理, 診斷, 治療 등의 內容을 전부 包含하고 있으며 辨

29)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醫宗必讀·四大家論』 p.80

證論治와 整體觀念을 잘 說明해 주고 있다.

1746年 薛生白이 重校를 하고 按語를 加했으며 이것이 後世의 流通本이다. 1955年 人民衛生出版社가 影印本으로 出刊해 내었다. 清代의 薛雪은 이 책을 대하여 “오직 『內經知要』는 以前에 내가 編輯한 『醫經原旨』와 比較할 때 더욱 사람들에게 親熟한 느낌을 주었다. 겨우 上下 兩卷만으로 構成되어 있지만 지극히 簡略하고 要點만이 잘 간추려져 있기 때문에 醫師들 中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힘을 쓸 수 없는 者들이 또한 약간 準則을 삼아서 胸中에 품어둘 수 있기 便하게 만들어져 있다.<sup>30)</sup>”라고 稱頌하였다. 『內經知要』는 歷代 이래로 『黃帝內經』을 選注한 各 醫家들의 書籍중 가장 簡明한 책 중의 하나이다. 李中梓는 『素問·至眞要大論』에 나와 있는 “그 요령을 아는 사람은 한마디에 끝나지만, 그 요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流散함이 무궁하다.”<sup>31)</sup>라는 文章을 選擇해서 『內經』의 重要內容을 說明하고 또한 자기의 臨床經驗과 結合하여 註釋을 加하고 闡發하여 初學者들이 『內經』의 重點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2) 『醫宗必讀』

明 崇禎 10年(1637)에 著述하고 全書가 모두 10卷이며 4部分으로 이루어져 있다.

㉠ 總論篇: 卷一은 醫論과 圖說로 ‘讀內經論’을 필두로 醫論은 14篇인데 모두 『內經』과 檢證된 關係이며 醫學源流를 紹介하고 醫學을 공부하는 첫걸음과 醫德에 관해 敍述하고 있다. 그중 讀書指導 2篇, 治病과 用藥指導 12篇은 李中梓의 學術思想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醫學의 源流와 醫業에 從事하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知識에 대해서 詳述하고 있는

데 이는 李中梓의 治學과 臨床經驗의 總結篇이라고 할 수 있다. 李中梓의 代表的인 學術思想인 ‘腎爲先天本, 脾爲後天本論’과 ‘水火陰陽論’이 바로 이 總論 가운데 들어 있다.

圖說은 『內經』에 根據하여 人體의 骨度와 臟腑部位 및 生理를 列舉하여 敍述하고 있다. 『內景臟腑圖說』12則에는 古說을 많이 받아들여 說明하였고 간혹 새로운 意見도 있는데 예를 들어 膻中을 定하는 問題를 論하면서 그것이 바로 心包絡이라고 하였는데 臟腑 部位와 經絡을 서로 配合하여 實證하였는바 이런 것들은 모두 參考할 價値가 있는 重要한 論題들이다.

㉡ 脈法: 卷二에 있으며 『新著四言脈訣』과 『脈法』, 『色診』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要點을 잡아 아서 脈學과 診斷法을 明快히 分析했다. 『新著四言脈訣』은 四言歌訣形式을 採用하여 既存에 있던 『四言脈訣』이라는 책에 漏落된 것을 補充하고 誤謬가 있는 것은 바로잡은 책이다. 寸口脈 만을 잡아서 診脈하는 理論을 아주 深度 있게 論述하고 있으며, 三部脈과 장부의 配屬關係를 明確히 하였고 診脈의 方法, 主意事項, 脈象의 主病, 相兼脈, 脈의 順逆과 吉凶, 및 五臟死脈에 대해서 論述하였는데 言語가 아주 簡明하고 要旨가 明確하며 暗誦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脈法心參』의 앞부분에는 大小腸을 寸上에 配屬하여 辨證하는 것이 錯誤라고 說明하였다. 三焦가 결국 右尺에 排列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論證하였고 膻中이 바로 心包絡이라고 端正하였으며, 兩尺에서 腎을 살핀다고 確定的으로 說明하였다. 그 다음에는 脈位, 脈神, 脈形, 脈理, 脈象의 症病과 危候 및 死候 등을 나누어서 敍述하였는데 短文으로 28篇이다. 『色診』은 『黃帝內經』의 ‘色診’에 관한 部分에 要點을 附加해서 敍述하였다.

㉢ 本草: 卷三-四부분이다. 本草徵要의 部分으로 體制는 『藥性賦』를 模倣하여 歌賦體形式을 써서 註釋과 禁忌등을 附加하였다. 『本草綱目』에 나와 있는 藥物과 有關한 內容을 選錄해

30)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內經知要·序文』 p.3

31)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 素問, 서울, 여강출판사, 1994. 『素問·五常政大論』 5卷 p.23

서 목었으며 諸家の 說을 廣範圍하게 採擇해서 自己의 意見을 詳細하게 注釋形式으로 하여 실었다. 常用藥 352종을 收錄하고 있다. 이 책은 사실은 『醫宗必讀』의 3-4卷인데, 本草徵要 上下卷으로 藥物을 草, 木, 果, 穀, 菜, 金石, 土, 人, 獸, 禽, 蟲魚의 11種類로 나누고 한 개의 藥物의 性味, 功效, 歸經, 主治, 禁忌 및 製法에 대하여 四, 六句의 歌賦体로 概括하였다. 뜻이 詳細하지 않고 曖昧한 곳에는 詮注를 달았다.

李中梓는 “本草는 아주 많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亡羊之嘆을 주고, 藥性은 아주 적으니 遺珠<sup>32)</sup>의 恨이 있다. 이에 『本草綱目』을 爲主로 하여 繁雜한 것은 깎아내고 重複된 것은 除去하여 精要로운 것만 取하고 名論을 採集하고 詳細한 註釋을 加하였으니 『珍珠囊』에 비해서 더 詳細하게 갖추어져 있다.”<sup>33)</sup>

㉔ 雜病證治: 卷 5-10의 部分으로 內科雜病 爲主로 33種 病證의 因證과 治療를 論述했다. 먼저 『傷寒論』의 證治를 說明하고 그 다음에 雜病證治를 羅列하였으며 傷寒 證治部分은 成無己의 『傷寒明理論』을 模倣하였다. 每 證候에 대해서 解說하고 『傷寒論』가운데 가장 精要한 法과 方을 輯錄하였으며 아울러 陶節庵의 治驗을 參酌하여 取하였다. 아울러 『內經』의 理論을 論旨로 삼아서 病機分析과 醫案을 붙였는데 選方이 實際의 診療狀況과 아주 密接하고 卓越한 醫學 入門書籍이다. 卷六에서 十까지는 雜病 36種을 나누어서 論하고 있는데 모두 『黃帝內經』을 闡述하고 다음으로 前賢들의 名論 集錄한 다음 그 위에 自己의 臨床體得을 加하였다. 잇달아서 按病하여 立方하고 方治와 方後에 대해서 說明하여 모두 後學들을 指導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뒤에 治療 醫案을 붙였는데,

이것은 李中梓가 臨床的으로 驗得한 것들이다. 古方 중에 重要한 것을 골라서 選方한 것이 607方이고 그 외에 自身이 새로 定한 즉 自制 新方 7方이 있고 여러 차례의 臨床적인 驗證을 거친 것으로 모두 奇效가 있으며 特異하게 發明된 것이 아주 많아서 『醫宗金鑑』과 『類症治裁』에서 모두 그것을 引用하고 있다. 1957년 上海衛生出版社에서 다시 出版하였다.

### 3) 『頤生微論』

李中梓의 첫 번째 著作으로 그의 나이 30세 때인 明 萬曆 46年(1618)에 刊行되었고 1642년 다시 刪補 重刊해서 綜合醫書가 되었다. 後에 李中梓 자신이 刪補 했고 아울러 그의 門人인 沈朗仲이 校訂을 했으며 後學인 吳進(字石虹)과, 아들 李允恒(字壽臣)이 校閱하였음으로 改名하여 『刪補頤生微論』이 되었다. 明 崇禎15年(1642)에 『李士材醫書二種』이라는 形式으로 刊行되어 世上이 나왔다.

項煜은 『頤生微論』에 있는 自身의 序文 가운데 書名의 含意를 解釋해 놓았는데, 그는 “頤는 기르다는 뜻인데 대저 微는 幽隱을 이룸이 아니니라. 이미 그 養하는 바를 보고, 다시 그 스스로 養함을 보니 2개의 뜻이다.”<sup>34)</sup>라 하였다.

책의 앞부분에 採輯한 書目이 있는데 全部 77種이 나열되어 있으며 『素問』, 『靈樞』, 『脈經』, 『丹溪四書』, 『仲景全書』, 『東垣十書』, 『河間三書』, 『傷寒六書』, 『儒門事親』, 『證治準繩』, 『玉機微義』, 『本草綱目』, 『養生主論』, 『易經』, 『悟眞篇』 등으로 明나라 以前의 有名한 著作들이다.

全書는 4卷으로 다시 三奇, 醫宗, 先天, 後天, 審象, 運氣, 臟腑, 虛勞, 邪, 傷寒, 廣嗣, 婦科, 藥性, 醫方, 醫案 등 24論으로 나누어져 있다. 內容은 비교적 廣範圍한데 養生과 醫學 源流, 臟腑, 診法, 治則, 方藥, 病證, 醫案, 五

32)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醫宗必讀·本草徵要上』 p.114

33)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8. 『醫宗必讀·本草徵要上』 p.114

34)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8 『刪補頤生微論』 p.642

運六氣 등에 대하여 詳述하였다.

藥性論이 가장 많고 臟腑와 醫方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疾病豫防을 두드러지게 重視하였다. 앞부분은 養生, 氣功, 按摩 및 活動 등의 調攝法을 논하고 精粹篇이라고 할 만한 '先天論'과 '後天論' 중에서는 脾胃의 主要內容을 깊이 推論하여 李中梓가 脾胃를 함께 重視하였다는 學術思想을 反映하였다. 腎이 先天의 本이고 脾가 後天의 本이라는 것을 闡明하고 따라서 이것으로 臟腑 經絡生理 및 病理, 診法, 保養 등에 관한 方面으로 論述하였다. 診法을 敘述할 때는 『內經』이나 『難經』 등 古典 醫籍중에서 四診에 관한 精髓부분을 택해서 밝히고 歸納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偏頗의이거나 誤謬가 있는 것은 바로잡았다.

病機부분에서는 『內經』의 病機 19條를 비롯하여 王冰, 劉完素 등 病機에 관해서 이미 闡述한 醫家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前人들의 治驗을 서로 參證하고 病機에 대하여 研究 討論하는 것을 重視하였으며, 辨證과 審因을 強調하였다.

藥은 草, 木, 米, 穀 등으로 분류하고 張仲景, 劉完素, 李東垣, 朱丹溪가 常用하던 重要藥物 120종과 附錄 20종, 新補 20종 選錄하였으며 『本草綱目』을 參照하여 繁雜한 것은 빼고 또한 重複된 것도 除去하여 오직 精要로운 部分만을 남기고 名論을 收集한 다음 거기에 자기의 意見を 덧붙여 놓았다.

'宣藥論'에서는 制方, 理, 法의 重要성과 君, 臣, 佐, 使의 實際 意義를 강조하였고, 七方 十劑의 具體的인 應用을 설명하여 名方을 약 100首를 모아서 실었는데 이것을 다시 丸, 煎, 散, 膏의 4種類로 分流하였다.

病證부분은 傷寒, 虛勞, 廣嗣, 婦科 등으로 예를 들었는데 '傷寒'을 論하는 데는 다만 脈證과 脈理의 闡述을 중시하여 "治則은 대략 6法이던 다하게 된다."라고 하여 脈, 證, 治의 세 가지에 대하여 強調하여 論하였다.

'虛勞'는 즉 "第於脾胃分主氣血, 約而實該, 確而可守也"라고 하여 脾胃의 重要性을 浮刻시켰다. 婦科論에서는 '鬱傷元氣'를 強調하여 치료에는 補虛散鬱의 聖藥인 歸脾湯을 쓸 것을 主張하였다.

그 뒤에 붙어있는 醫案에서는 證候가 混雜한 形態를 띠고 있는 病案 30例를 모아놓았다. 그 論旨는 아주 確하고 分명한데 李中梓의 臨症의 精華라고 評價할 수 있다. 마지막에 있는 1篇 『感應二十四』는 總目과 凡例에 근거해서 '錄善惡之報十條'를 만들었다. 『李士材醫書二種』은 『刪補頤生微論』 4卷과 『內經知要』 2卷을 包括하고 있으며 明 崇禎 15년(1642) 壬午刻本이다. 『刪補頤生微論』의 現存 板本으로 明 萬曆間에 만들어진 書林葉仰峰刻本이 또한 남아있는데 이 板本이 『頤生微論』의 初稿版本이다. 이 책은 『四庫全書』에 題目만 記載되어 있다.

비록 全書의 分類가 비교적 散漫한 편이지만 醫學 理論書로서 그리고 臨床書로서 비교적 實用的인 參考書라고 할 수 있다.

#### 4) 『傷寒括要』

張仲景의 『傷寒論』에 관하여 李中梓는 淸 順治 2年(1645)에 『傷寒授珠』 10卷을 지었으나 兵火로 毀折되고 마침내 『傷寒授珠』에서 浩繁한 것은 削除하고 要點만을 取하였다. 거기에 各家의 注를 살핀 후에 자기의 意見を 더하여 淸 順治 6年(1649)에 『傷寒括要』 上下 兩卷으로 마침내 編成되었다.

上卷은 傷寒總論에서 시작하여 各經證治總論, 各症總論 不服藥爲中醫論 腎虛易犯傷寒論, 兩感論, 仲景397法113法論 등의 여러 가지 理論을 說明하며 肉疴證에서 끝난다. 『傷寒論』의 精要한 部分에 대하여 밝혀 놓았다. 成無己의 『傷寒論注』와 龐安常의 『傷寒總病論』 및 陶華의 『傷寒六書』를 輔佐한 책으로 『醫宗必讀』중에 있는 傷寒論을 더 專門的으로 論하고 補充하여 敘述한 것이다.

下卷은 5證(百合, 狐惑, 日赤黑, 陰毒, 陽毒)에 대한 總論에서 시작하여 中暑中噎에서 끝나며 그 뒤에는 仲景의 113方이 붙어있고 아울러 雜病에 관한 56方이 붙어 있다. 『傷寒論』原文의 羅列順序를 따르지 않았고 뒷부분에는 作者가 注釋한 慣例를 羅列해서 重要한 要旨를 要約해 놓았으며 重要하지 않은 字句는 削除하여 文章의 흐름이 잘 통하게 하였다. 李中梓는 '腎虛人最易犯傷寒'이라고 認識하여 腎이 先天의 根本이라는 觀點을 分明히 하였다. 이 책은 『傷寒論』을 研究한 參考書籍으로 앞에 總論을 두고 證을 綱目으로 하여 마지막에 處方과 證을 列舉해 놓았다. 論述이 상당히 精密한 편이며 『珍本醫書集成』에 收錄되어 있다. 方과 證이 함께 羅列되어 있는 것이 特徵으로 臨床에서 使用하기가 아주 便利하게 되어 있다.

#### 5) 『診家正眼』

脈學에 관한 著作으로 1642년에 撰述되었지만 原刻本은 이미 散佚되었고 그의 門人, 尤乘이 이 책을 『病機沙篆』, 『本草通玄』과 合刊해서 『土材三書』라는 叢書의 形態로 淸 康熙 6년(1667)에 만들었다. 後世에 혹 單行本으로 版刻되어 나왔으며 內容은 尤乘이 增補했다. 本書는 上下 兩卷으로 上卷은 총 47편으로 脈의 名義부터 시작하여 脈學의 基本理論과 그 臨床應用에 대해서 論述했고, 『內經』과 『難經』의 理論을 爲主로 하였으며 아울러 王叔和, 李東垣, 朱丹溪, 滑壽, 戴同父, 李時珍 등 諸家의 學說을 引用하였고 별도로 注釋과 按語를 달아서 자기의 意見을 充分히 붙여놓았다. 下卷은 四言歌訣 形式으로 28脈의 脈狀과 主病, 兼脈 및 疑似脈을 어떻게 鑑別하는가 하는 것 등을 重點의으로 論述하였다. 더불어 高陽生의 『脈訣』에 있는 錯誤를 辨別하여 밝혀 놓았고 書末에 脈法總論을 붙였다. 脈法總論에는 脈象이 비록 여럿이지만 表裏, 陰陽, 氣血, 虛實을 綱領으로 삼아서 概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本文中의 '因形氣以定診' 1篇은 『醫宗必讀』에서 轉載해서 온 것이다. 本書는 일찍이 여러 차례 刊行되었으며, 1966年 上海科技出版社가 刪節하여 다시 새롭게 出版하였다. 이 책은 비록 한 卷의 脈學 著作이지만 同時에 脈學을 爲主로 한 四診專門書로 望, 聞, 問의 3가지 診則을 簡述하였다. 그 중에 望色과 望形, 望舌, 問因, 聞聲, 死候 등 10篇은 尤乘이 增補하였는데 臨床診療 參考書로 아주 有益하다.

#### 6) 『病機沙篆』

上下 兩卷으로 되어 있으며 『土材三書』라는 叢書의 形態로 淸 康熙 6년(1667)에 만들어졌다. 內科雜病을 爲主로 서술하였는데 上卷은 中風, 虛勞, 痰喘, 噎膈反胃 등 11종 病證으로 나누어 列舉했으며 下卷은 頭痛부터 시작하여 眩暈, 心痛, 腹痛 등의 29종의 病證을 列舉하였으며 각각의 證은 歷代醫家의 論述, 病機分析, 病因, 症狀, 治法과 處方을 摘錄해 놓았고 자기의 意見을 參考하여 註釋을 달아놓았다. 각각의 病證의 含義와 病因, 病機, 症狀, 分類, 鑑別, 治則, 治法, 救急, 豫防 등에 대하여 現實과 아주 適合하게 맞아 떨어지는 詳細한 論述을 하고 있다. 이 책의 特徵은 論이 있고 方이 있으며 醫案은 실지 않았으나 鍼灸療法은 모두 실었다. 論을 爲主로 하여, 病機의 分析에 대하여 상당히 새로운 見解를 갖추고 있다.

#### 7) 『本草通玄』

上下 兩卷으로 되어 있으며 藥物 專門書이며 『土材三書』라는 形態로 淸 康熙 6년(1667)에 만들어졌다. 尤乘을 통해서 增補되고 校正되었다. 藥物을 草, 穀, 木菜, 果, 寓木, 苞木, 蟲, 鱗, 介, 禽, 獸, 人 및 金石 등 14部로 나누고 藥物 341種을 함께 收錄하였으며, 每 藥物의 臨床應用을 重點의으로 敘述하였다. 『黃帝內經』과 張元素, 王好古 등 前賢들의 名論을 모아서 自身의 臨床經驗과 結合하여 藥物의 性味와

歸經, 功用, 主治, 配伍, 產地, 炮制, 煎服法, 主意事項, 禁忌, 藥物眞僞辨別法 등을 論述하였다. 上卷에는 草部와 穀部 藥物 148種이 記載되어 있고, '植物性鑑賦' 4首가 덧붙여 있다. 下卷에는 木部, 菜部 등의 藥物이 모두 193種이 記載되어 있고, 書末에는 用藥機要, 引經報使, 鍼灸要穴圖 등을 附加하였다. 이 책은 藥物을 編輯하고 또 部로 나눈 것이 『醫宗必讀』이나 『本草徵要』와 대체로 相同하며 前賢들의 學說의 原義를 擴大하여 增補하였다. 本書의 特徵은 藥物의 應用 및 炮制부터 藥性과 制藥 및 用藥 方法의 內容까지 廣範圍하게 論述하고 있다는 점이다.

8) 『雷公炮制藥性解』

明 萬曆 47年(1619)에 『藥性解』를 著述했는데 그는 自序中에서 “내가 어려서는 孤兒여서 藥을 가지고 慈父에게 나아가지 못했지만 間間히 母親은 그 藥 맛을 보았다. 물러가서는 方書를 考察하면 合當하지 못한 바가 많더라. 이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에 讀書의 거름이 있으면 『本經』, 『仙經』 및 十四家本草, 四子 등의 書를 펼쳐서 다 研究를 해 보지 않은 것이 없었고 然後에 陰陽之所屬과 五行之所宜을 分辨할 수 있게 되어 『藥性解』 二卷을 지었다.”<sup>35)</sup>라고 했다. 後에 姑蘇<sup>36)</sup>의 錢允治가 補訂을 하였는데 各 藥物의 아래에 『雷公炮制論』과 有關한 炮制方法을 增補한 후 6卷으로 만들어 『(鑄補)雷公炮制藥性解』가 되었다. 明天啓 2年(1622)에 板刻하여 세상에 나왔다. 李中梓의 序文에는 책이 만들어진 年月이 없다. 일반적으로 後說이 前說을 補正하는 著作의 慣例로 본다면 『雷公炮制藥性解』에서는 “豨薺草”를 “久服하면 크게 補益한다.”<sup>37)</sup>라고 敘述

하고 있다. 그러나 『醫宗必讀』에서는 “豨薺草는 風濕을 다스리는데 長點이 있으므로 畢竟은 祛邪之品일텐데 補하는 藥이라고 믿으라 하나 나는 감히 믿지 못하겠다.”<sup>38)</sup>라고 疑問을 提起하였다. 그 후에 『本草通玄』에서는 “내가 少時에는 그것을 믿고 삼가 精誠을 다하여 그 일을 修行했지만 久服해도 效果가 없는지라, 이에 方書에 완전히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sup>39)</sup>라고 써서 더욱 進一步한 修正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책들은 『雷公炮制藥性解』가 분명히 『醫宗必讀』이 만들어진 前, 즉 明 崇禎 10年(1637) 以前에 만들어 졌다는 것을 서로 相互間에 實證을 하고 있는 셈이다.

內容은 金石, 穀, 果, 草(上中下), 木, 菜, 人, 禽獸, 蟲魚로 都合 11部이며 收錄된 藥이 全部 335種이고 每種마다 그 性味, 主治와 아울러 按語를 加하였다. 藥의 性味와 歸經 效能을 아주 簡明하게 論述해 놓았다. 藥性의 解說에 대해서는 臟腑에 들어가는 歸經을 強調하였고 按語에는 李東垣, 朱丹溪, 張潔古, 寇宗奭, 王好古 등 諸家들의 學說을 引用하였으며 아울러 是非를 바로 잡기도 하였다.

引用된 書目<sup>40)</sup>에는 『黃帝素問』, 『神農本草經』, 『蜀本草』, 『吳氏本草』, 『食療本草』, 『四聲本草』, 『刪繁本草』, 『食性本草』, 『唐本草餘』, 『藥對』, 『本草性事類』, 『日華子本草』, 『證類本草』, 『陳藏器本草』, 『藥性論』, 『南海藥譜』, 『太上玄變經』, 『三洞要錄』, 『八帝聖化經』, 『修真秘旨』, 『本草衍義』, 『東垣藥性』, 『丹溪藥性』, 『開寶重定本草』, 『開寶新詳定本草』, 『太清草木記』, 『陳承別說』, 『神仙服餌法』, 『博物志』, 『廣五行記』, 『

社, 1999. 8 『雷公炮制藥性解』 p.606

38)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8 『醫宗必讀·本草徵要上』 p.131

39)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8 『本草通玄』 p.512

40)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雷公炮制藥性解』 p.558

35)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8 『雷公炮制藥性解·自序』 p.555

36) 姑蘇: 지금의 中國 蘇州.

37)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

神仙芝草經, 『廣異記』, 『稽神錄』, 『原病式』, 『雷公炮炙論』, 『仲景全書』 등 36種이다. 이 책은 實用的인 中醫學 書籍으로 收錄된 藥物은 『神農本草經』에서부터 그 후의 『藥性解』, 『本草拾遺』, 『圖經本草』, 『日華子本草』, 『本草衍義』, 『珍珠囊』, 『用藥法象』, 『本草衍義補遺』 등의 精選된 內容까지 包含되어 있으며 自身의 臨床 經驗과 結付시켰다. 또 이 책은 大膽하게도 以前의 책들이 가지고 있었던 觀點에 대해서 異義를 提起하여 잘못된 것은 是正하였으니 그의 學問하는 精神은 多분히 實事求是적인 性格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만하다.

어떤 사람은 『雷公炮製藥性解』가 李中梓의 著作이 아니라고 主張하는데 예를 들어 張心徵 같은 사람은 『僞書通考』에서 “李中梓의 著書에는 『傷寒括要』, 『醫宗必讀』 등이 있는데 오직 『雷公炮製藥性解』만 없다. 이는 李中梓가 醫名이 있으므로 假託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楊時泰<sup>41)</sup>는 그의 著書 『本草述鉤玄』의 ‘稀簽草’ 條文에서 『藥性解』의 按語가 李中梓의 說이라고 看做했다. 近代의 사람으로 謝仲墨은 『歷代醫書叢考』에서 “『藥性解』는 明代 天啓 때 錢允治가 刊行한 것인데 題目이 李中梓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sup>42)</sup>라고 主張하였다. 아울러 『醫宗必讀, 本草徵要』와 『本草通玄』은 相互間에 서로 印證關係에 있으며 學術觀點도 서로 一脈相通하는 점이 있으므로 李中梓의 眞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 9) 『裏中醫案』

다른 이름으로 『李中梓醫案』이라고도 한다. 全書는 1卷이다. 序文과 後記를 根據로 살펴보면 이 책은 李中梓의 오랜 친구인 于磐公이 李中梓의 家에서 所藏하고 있던 醫案抄錄에 依據하여 다시 그의 四歲孫인 尤升庵을 거쳐서 장

차 死藏될 뻔 했던 것을 이어지게 했고 지금까지 傳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撰述후에도 刊行되지 않았다가 現在에 流通되는 것은 清抄本으로 流傳된 年代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책 중의 적잖은 文字들이 좀 벌레에 毀損되어 識別이 어렵다. 총 161개의 醫案이 실려 있으며 이 中에는 李中梓가 當代의 유명한 醫家들을 治療한 治驗例가 收錄되어 있다. 예를 들면 秦景明의 痰飲病을 治療와 施立澤의 兩足腫重劇痛의 驗例가 실려 있다.

李延是가 輯著한 『脈訣滙辨』 卷九에는 李中梓醫案 몇 수가 실려 있고 李中梓의 『醫宗必讀』과 『刪補頤生微論』 中에도 각 醫案이 실려 있는데 이 세 책을 對照해보면 『裏中醫案』에 있는 161개의 醫案 中에 『脈訣滙辨』에 있는 것은 54案이고, 『醫宗必讀』에 있는 것은 56案, 『刪補頤生微論』에 있는 것은 13案이다. 이 四種의 책에 있는 醫案들은 서로 完全히 一致하지는 않는데 좀 浩繁한 것, 簡略한 것, 仔細한 것, 省略한 것 등의 差異가 있으며 서로 補完 관계에 있다.

마지막에는 後記가 붙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다. “이 책은 나의 曾祖父, 于磐公께서 손으로 쓰신 것으로 지금까지 50여년이 흘렀다. 그 殘編은 낡은 書架 위에 여전히 있었는데 그 앞뒤를 보니 毀損이 아주 甚하여 이미 半 이상이 損傷되었다. 나의 父親이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土材 李公의 집에 간직되어 있던 脈案인데 나의 祖父와 李公께서 交分이 있었기 때문에 이 抄錄을 얻어서 비밀스럽게 간직할 수 있었으니 마땅히 貴하게 여겨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아! 나의 曾祖父께서 이 抄本을 쓰실 當時에는 4世孫인 내가 그것을 이어받아 온전하게 할 것인 줄을 모르셨을 것인데, 또 내가 이것을 이어받은 후에 나도 역시 어느 누가 다시 그것을 再次 分明하게 할지 모르겠구나!”<sup>43)</sup>

41) 清 江蘇 武進縣人 字는 貞顯

42) 劉祖貽, 孫光榮, 中國歷代名醫名述,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1 p.858

10) 『本草徵要』

明 崇禎 10年(1637)에 刊行되고, 全書는 上下 兩卷이며 역시 藥物著作이다. 이 책은 사실은 『醫宗必讀』의 三-四卷이며 藥物을 草, 木, 果, 穀, 菜, 金石, 土, 人, 獸, 禽, 蟲魚의 11種類로 나누고, 모두 352種의 藥을 실었다. 每藥은 쌍을 이루는 聯句로 編成되어서 讀者가 暗誦하기 便하게 하였으며 또한 按語를 加하여 說明하였다.

上述한 10種의 醫書外에도 文獻記載에 根據하면 李中梓가 著述한 것으로 『醫學傳心』, 『醫統』, 『內外景圖說』, 『脈鑑』, 『銅人穴經』, 『外科微論』, 『外科點化』, 『運氣考』, 『居士傳燈錄』, 『道火錄』 등이 있으나 이미 모두 亡佚되었다.

· 참고

『土材三書』: 『診家正眼』, 『本草通玄』, 『病機沙篆』을 包括하고 있으며 淸 順治 7년(1650)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嚴密하게 말하면 別個의 書籍이 아니고 위의 3가지 책을 叢書의 形式으로 합쳐서 펴낸 것이다.

尤乘이 쓴 序文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診家正眼』은 이전에 原刻이 있었는데 本朝 庚寅年부터 시작하면 아깝게도 散失된지 10여년이 넘은지라 내가 거듭 考訂하고 木板에 새겨 出判하였고 그 후에 다시 『本草通玄』과 『病機沙篆』을 校訂해서 습하니 『三書』가 되었다.”<sup>44)</sup> 淸 康熙 6년(1667)에 李中梓의 門人, 尤乘이 增補하고 尤侗이 序文을 더해서 『土材三書』를 간행하였다. 叢書의 뒤에는 尤乘이 지은 『壽世青篇』 2권이 덧붙여 있다. 尤侗은 序文에서 評하기를 “雲間 李土材 先生은 近代의 國醫이신

데 지은 책을 아주 많다. 출판되어 나온 책은 診家正眼으로써 審脈하고 本草通玄으로써 辨藥한다.”라고 말했고 出判되지 않고 간직되어 있는 책은 “病機沙篆으로 즉 治法이 具備되어져 있다.” “내가 듣기에 李先生은 治病하는데 뜻에 맞게 任意的으로 할 뿐 결코 한 法에 拘束되지 않으며 일단 한번 方이 나오면 사람들이 모두 놀라지만 投與하면 바로 適中하니 열에 하나라도 失手하지 않는다. 三書를 읽으며 따라가 보면 즉 古今의 方이 뒤섞여 있고 標本을 끝가지 다 밝혀내며 變化가 있지만 宗旨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한 어찌나 詳細하고 慎重하던지!”<sup>45)</sup>라고 말했다. 또 門人인 尤乘이 評하기를 “著書에 『正眼』一書가 있는데 진정 어두운 방의 한 燭의 등불이요, 王叔和의 『脈經』과 더불어 天地間에서 不朽의 작품이다. 精微하게 研究한지 40餘年인데 위로는 軒岐부터 아래로는 百家에 이르기 까지 전부 研究하지 않은 바가 없고 그리하여 여러 가지 學說을 精通해 있었으며 群言을 穿鑿하여 雜物은 버리고 精髓만을 골랐으며 俗된 것은 버리고 優雅한 것은 崇尚하였으니 讀者들이 한마디 한 글자라도 얻는다면 足히 度量이 넓어질 것 같다.”라고 하였다.<sup>46)</sup>

### III. 結語

醫家로서 아무리 좋은 名聲을 가지고 있더라도 책으로 그 생각이나 思想을 담아내지 못하면 後人들이 그의 높은 醫術을 맛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評價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책을 남긴다는 것은 名醫로서 評價받는데 아주 중요한 過程이라 할 수 있다. 이에 李中梓가 남긴 著書와 그의 生涯를 중심으로

43)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8 『裏中醫案』 p.783

44) 診家正眼 向有原刻 始於本朝庚寅 惜乎即遭散失, 越十年 予重加考訂 付之剞劂; 后復校 『本草通玄』 『病機沙篆』合爲 『三書』

45)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8 『診家正眼』 尤侗의 序 p.373

46)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8 『診家正眼』 尤乘의 序 p.370

얻은 結論을 여기에 신는다.

1. 李中梓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그다지 부유한 環境은 아니었지만 學習을 위해서는 비교적 良好한 環境이었다. 단지 自身이 病魔에 시달렸고, 또한 父母와 妻 그리고 兄弟가 藥禍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醫學의 길로 들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李中梓의 著作은 약 20餘種이 있고 兵火를 거치면서 散佚된 것이 半이 넘으며 지금까지 약 10種이 남아있다. 현재 流通되고 있는 것은 『內經知要』, 『醫宗必讀』, 『願生微論』, 『傷寒括要』, 『診家正眼』, 『本草徵要』, 『病機沙篆』, 『本草通玄』, 『雷公炮制藥性解』, 『裏中醫案』 등이 있다.
3. 李中梓는 특히 醫學經典을 중시하였는데 著書 중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著述 한 것이 『內經知要』이다. 『黃帝內經』에 적혀있는 여러 內容중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熟知하도록 要點을 짚어 要約해 놓은 책이다. 이 책은 그의 나이 54세인 1642년에 지은 책으로, 그가 醫學의 길에 들어선 1605년 이래로 40여년이 된 시기로 그의 完熟된 醫學的體系와 思想을 엿볼 수 있다.
4. 李中梓는 40여년간 醫業에 從事하면서 많은 醫友와 弟子를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그의 醫名이 양자강 북쪽에 떨치면서 劉道深, 徐子瞻, 沈元裕등과 함께 '上海四大醫家'란 稱號를 받았다. 『裏中醫案』에 보면 그 당시의 名醫로 꼽히던 시패(字 沛然, 號 笠澤)를 治療한 經驗이 있고, 또 『醫學達變』에 보면 當代의 名의로 推仰받던 王肯堂(字 宇泰, 號 損庵)의 脾泄證 치료에 대한 驗例가 記載되어 있으니, 이런 逸話는 그가 여러 醫家와

폭넓게 교류하고 있었다는 例證으로 그의 醫學에 대한 深奧한 경지를 엿볼 수 있다.

5. 師承 關係에서 李中梓의 醫學思想의 第一傳은 沈朗仲이고 再傳은 馬元儀이며 三傳은 尤在涇이다.

## 參 考 文 獻

1.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 素問, 서울, 여강출판사, 1994.
2.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 靈樞, 서울, 여강출판사, 2000.
3. 陳大舜, 曾勇, 黃政德, 各家學說, 中國篇, 大成醫學社, 2001.
4. 包來發主編, 李中梓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8.
5. 李融元, 明季上海名醫李中梓, 上海中醫藥雜誌 1955;(8)
6. 楊春波, 試論李中梓的學術思想及其主要成就, 福建中醫藥1963;8(4)
7. 徐榮齋, 略論李士材學說, 浙江中醫學院學報 1978;(2)
8. 徐榮齋, 李士材學派考略, 上海中醫藥雜誌 1980;(2)
9. 譚學林, 李中梓脾胃學說探討, 浙江中醫學院學報 1982;(6)
10. 曹雲霖, 李中梓治療疑難重症經驗初探, 浙江中醫雜誌 1985;(1)
11. 王米渠, 李中梓的醫學心理學探討, 天津中醫學院學報 1987;(2)
12. 包來發, 上海名醫:注重脾胃自成一派, 李中梓治痢用補經驗, 上海中醫藥雜誌 1990;(12)
13. 馮恩波, 李中梓治瀉九法補識, 北京中醫藥大學學報 1994; 17 (3):
14. 金慶江 등, 李中梓對吳中醫學的影向, 江蘇中醫 1994; 15 (9):

15. 倪世美 等, 李中梓“水火陰陽論”淺析, 浙江中醫學院學報 1995; 19 (2):
16. 張英強, 醫宗必讀, 不失人情論, 成都中醫藥大學學報 1995; 18 (4):
17. 張介賓, 譯注類經, 第 2冊, 海東醫學社, 2001. 7
18. 金海明외, 虛詞大辭典, 成輔社, 2001. 7
19. 莊子, 乙酉文化社, 1983. 2.
20. 劉祖貽, 孫光榮, 中國歷代名醫名述,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1
21. 金斗鍾, 東西醫學大綱, 探求堂, 1981. 2
22. 尹暢烈外, 詳解醫學漢文, 周珉出版社, 2001. 8
23. 洪元植 尹暢烈, 增補中國醫學史, 一中社, 2001. 2
24. 李南九監修, 醫宗必讀(上)(下), 木과土出版社, 2000. 10
25. 姜忠模, 目經大成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博士學位論文, 2003. 8
26. 金碩鎭, 大山周易講義, 大有學堂, 서울, 1993, 3
27. 李尙仁, 本草學, 修書院, 서울, 1975.